

곡성,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총 1만3천654건 16억 원 부과

곡성군이 2022년도 재산세 총 1만3천654건 16억 원을 부과하고, 7월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건축물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부과 횟수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단 건축물은 7월에 재산세 전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고,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도 있다.

자동 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등록한 경우에는 잔액이 없어도 납부 처리가 된다. 최근에는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납부가 안 될 경우에도 가상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바뀌어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

납세자는 2022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알아두고 부과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올해도 적용돼 구간별로 세율이 0.05% 인하됐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선섭 기자

여수,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4종 공급 시 자체생산...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큰 효과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매년 친환경 농업인과 축산농가 등에 유용미생물(EM) 배양원액 80톤 가량을 공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농업인은 물론 희망하는 시민에게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해오고 있다.

유용미생물(EM)은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 유익한 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한 복합미생물이다.

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미생물은 ▲악취와 유해가스 제거, 착색과 당도 증가에 효과가 있는 광합성균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 유해균을 억제해 주는 고초균 ▲퇴비 부속 축진 및 토양 산도 교정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토양 개량과 생장 물질을 분비하는 효모균 등 총 4종이다.

미생물은 보통 물에 100배~1천배

로 희석해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토양에 사용하면 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축사 등 악취 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받길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여수시 주동1길 32) 유용미생물 배양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공급받은 미생물을 방치 또는 미사용하거나 판매 등 공익 목적에 적절치 않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61-659-4481)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업 생산비 절감과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로 유용미생물을 신청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구례군, 환경오염행위 단속

구례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7~8월에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7월 초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7~8월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심건식 기자



광양시는 최근 광양 중마도서관 인문학실에서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교육 성료

광양시는 최근 광양 중마도서관 인문학실에서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회의 진행자, 조력자) 양성교육’은 지역 사회 주민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과 스마트 회의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마을주민

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핵심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3일에 걸쳐 24시간 동안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퍼실리테이션 이해,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렉션 기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에서 인증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데, 이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순천시에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개소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협업으로 윈스톱 서비스

순천시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전남 동부본부가 문을 열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 역할로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과 기업 실적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남권역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은 올해부터 ▲(사)전라남도농촌종합지원센터(나주) ▲(사)상생나무(여수)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순천시 아랫장에 (사)전남농촌종합지원센터의 분점으로 동부본부를 개소했다.

이로써 순천과 전남동부권 사회적경제기업의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사)전라남도농촌종합지원센터와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상담·지원과 판로확대에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협업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통합지원기관 동부본부가 신설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순천시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확대·판촉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